

보도시점 2024. 10. 7.(월) 11:00  
10. 8.(화) 조간

배포 2024. 10. 7.(월) 09:00

##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 실효성 높인다

- 생산자단체·유관기관 등과 「한우 수급 및 산업 발전 협의체(TF)」 구성 및 대책 추진 상황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지난 9월 10일(화)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‘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「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(TF)」를 구성하고, 10월 10일(목)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.

협의체(TF)는 농식품부, 한우협회, 한우자조금,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와 농협경제지주,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,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학계·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.

이번 협의체(TF)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·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.

앞으로도 협의체(TF)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 과제인 ▲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, ▲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, ▲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비롯하여,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▲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, ▲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, ▲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, ▲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·보완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“최근 한우가격 약세,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,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”라면서, “앞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협의체(TF)를 통해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미흡 과제는 중점적으로 관리·보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	책임자	과 장	이연섭 (044-201-233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수 (044-201-233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